첨부: 「유일한 장학금」 취지문: "유일한 정신" 확산을 기대하면서

유한재단은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취지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 즉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조와 국가 발전의 핵심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한 세기 전 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세운 선각자이며, 개인적으로는 청렴과 정의를 기본 생활 원칙으로 삼으면서,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일제 점령기 시대에 조국 독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지도자로서도 헌신하신 분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사회이고 그 종사자는 단지 기업을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철학도 지니셨습니다. 친족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함으로써 혈연에 의한 가업 승계를 일찍이 포기하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 상장으로 자본과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근대적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효시를 보이셨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이윤추구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통상적 기업가정신을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의 책무를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박사님 특유의 기업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1904년 9세의 어린 나이에 홀로 도미하여, 소년 성장기를 선교사 집에서 생활해오면서 "근면, 절약, 정직, 성실"의 청교도적 생활철학을 몸에 익혔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상학(commerce)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직후 "La Choy Co."라는 식료품 회사를 설립하였고,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함으로써 젊은 기업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는 미국 Philadelphia에서 이승만·서재필 박사 등의 국가지도자들이 주도한 "제1회 한인 총대표 회의"에서, 대학생 자격으로서 동 대회의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민의 민족자결에 관한 "한국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釋明)하는 결의문"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결의문 기초의원을 대표하여 낭독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 직후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귀국하여, 국민이 건강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국의 "La Choy Co."를 정리한 그 자금을 활용하여, 1926년에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

기 아래에서 얻은 교훈인 '건강한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일념에서 제약회사 설립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1941년 말에는 유한양행 사장직을 사임하고, 50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미국 정보국 OSS (CIA 전신)의 고문으로서 "한인 국방 경위대"를 편성하여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등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런 정보활동에 대한 비밀사항이 사후에 공개됨에 따라,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우리나라 해방 직후 초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여 기업 지도자로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유한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유일한 박사님의 이념과 철학은 "**국가, 교육, 기업, 사회 환원**"의 네 단어로 축약될 수 있으며,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최우선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 국가 발전의 토대를 올바로 구축하는 데에 헌신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의 기능이 건실하게 작동하여야 국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 후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소 특수훈련을 받은 것에서 개인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 기관 설립**의 중요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올바로 키워나가야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비와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려 공과 기술학교」를 1953년에 개교하여 인재양성에 직접 뛰어들었고, 이후 유한공고와 유한대학교를 포함하는 유한학원의 설립으로 그 유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견인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실천한 선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번성은 왕성한 기업 활동이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무려 한세기전, 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을 설립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La Choy Co."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유한양행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④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기업의 주인은 사회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이미 갈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친족에게 남기지 않고 유산 전부를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 (현 유한재단의 전신)에 기증한 것은 우리 사회를 감동하게 한 기업이익 사회 환원의 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우리나라 사회여건에서 형성되었던, "유일한 정신"의 네 가지 요소를 그동안 변화해온 사회경제 환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진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재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국가에 관해서는, 유일한 박사님이 경험하였던 일제 강점기 또는 해방 이후 국가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혼란하였던 당시의 제반 사회환경과 비교할 때, 지금은 국가체제는 선진국 형태로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온 국민의 화합과 참여에 기초를 둔 미래지향적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계 주도적 국가의 발전에 헌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계 역사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더 강조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는 시각에서, 그 당시의 국가라는 의미를 재해석해 볼 수 있겠고,

둘째,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은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교육 기관이 양적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교육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올바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공의식(public mind)을 함양함으로써 지나친 개인 중심적(egocentric)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직, 근면, 성실 등의 청교도적 이념을 생활화하는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며,

셋째, 기업에 관해서는, 물론 나라 번성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므로 시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이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건전하고 정의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철학을 고려할 때,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ESG (환경적·사회적·지배구조)나 CSR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에 관련된 글로벌 규범에 상응하도록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지구환경을 살리고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넷째,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선진화해 나갈수록 국가가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국민 복지 증진 부문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보완해 나가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선진국에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기부문화 등이 뒤처져있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제도도 이에 맞게 개혁되어야 하겠으나 기업도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 봉사활동의 창달에도 기업이 앞장서나가야 함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한재단은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유한 정신"을 우리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재해석하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 정신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는데 정신적 초석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 봉사활동, 복지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낙오되고 소외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한 정신은 유한재단이나 유한양행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전유물이거나 이들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이념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골고루 확산하여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유한 정신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유한재단의 사회 헌신적 활동 범위를 가일층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금번에 "유일한 장학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유한재단에서 지금까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유한장학금"은 기존의 방법대로 유지하되, 석·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유일한 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아닌 학업 지원비를 제공하는 장학금이라는 특성도 또다시 지적합니다. 해당 학교의 대학원장 또는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정신의 기풍이 사회 저변에 더욱 확산하여, 우리 사회에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행복한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유일한 장학금이 일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학금을 수련하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4월

유한재단 이사장 김중수